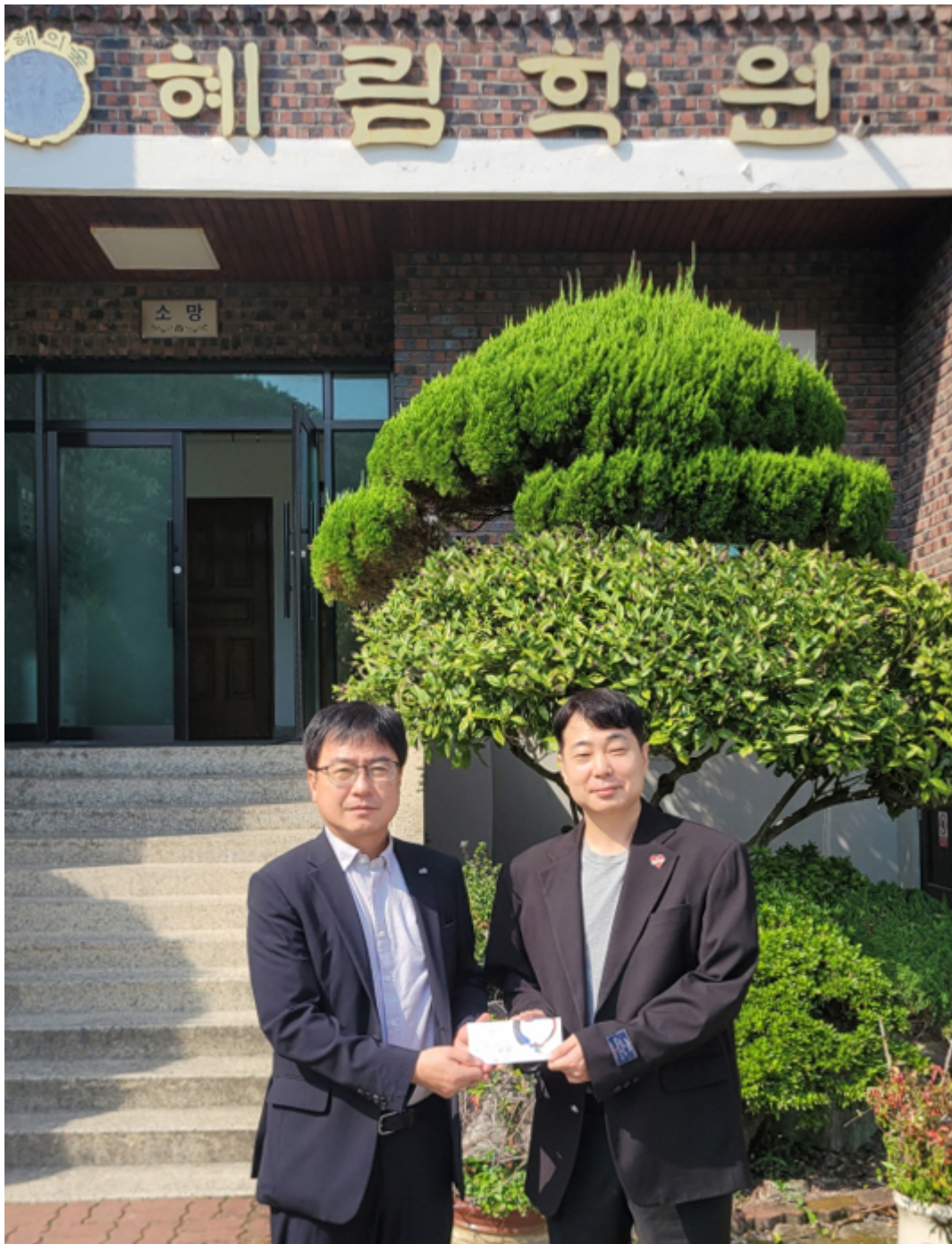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기부 실시

윤 김영찬기자 | 승인 2026.09.16 17:55 | 10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위한 나눔 실천 따뜻한 정 전달



▲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한가위를 맞아 15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인 '혜림학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지사장 이재경)는 다가오는 한가위를 맞아 15일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인 '헤림학원'을 방문해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번 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지역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의령지사는 매년 명절마다 관내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후원 물품 및 상품권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에 앞장서 오고 있으며, ESG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재경 지사장은 "추석을 맞아 아이들이 더욱 따뜻하고 풍성한 명절을 보내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외된 이웃을 돌러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온누리상품권은 헤림학원 아동들의 명절 선물과 필요한 생활용품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영찬기자

저작권자 ©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찬기자